

진정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김 영 준¹ 김 영 일¹ 이 흥 철² 김 경 일^{1*}

¹아주대학교 심리학과 ²엔아이리서치

진정성은 철학에서 위선이나 기만적인 삶의 반대 개념이다. 진정성에 기초해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이 해외에서는 연구되어 온 반면, 진정성 측정을 시도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의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분야의 사용 목적으로만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성 척도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진정성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과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통합했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진정성은 자기 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HEXACO,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조절초점, 정서다양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진정성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는 것을 의미하였고, 일상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경험적 개인차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기 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 상호의존적, 통합적 접근, 심리적 건강

*교신저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연구분야: 인지심리학
E-mail: kyungilkim@ajou.ac.kr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미디어에서 언젠가부터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다. 혹자들은 진정성을 ‘진실(truth)’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심(sincerity)’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진정성은 서양 문화권의 ‘Authenticity’의 번역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 온 실존 철학이나 현상학 분야에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개념이다(Kernis & Goldman, 2006).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성은 누군가의 실제(real), 즉 참 자기(true self)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며 윤리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에서 자기 기만이나 위선적인 행동, 진실하지 못한 삶의 반대말로 사용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Kernis & Goldman, 2006). 따라서 진정성 구성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개인의 윤리에 관한 측정이나 기만 행동의 연구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을 척도화 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Kernis와 Goldman(2006)은 여러 철학적인 견해들로부터 ‘진정성 있게 기능하는 것(authentic functioning)’은 자기 이해, 자기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행동, 자기의 존재론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상대적인 자기 기만의 부재와 상대적인 비편향적 인식의 존재), 대인 관계에 있어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 생각에 따라 인식(awareness), 비편향적 사고(unbiased processing), 행동(behavior), 관계적 지향성(relational orientation)을 하위 구성개념으로 하는 진정성 검사(Authenticity Inventory; AI3)를 개발하였다.

Wood, Linley, Maltby, Baniotis, Joseph(2008)은 개인의 기질에 초점을 맞추는 진정성 척도(Authenticity Scale; AS)를 개발하였다. Barrett-Lennard(1998, p.82)가 정의한 진정성의 세 구성요소를 구성 개념으로 한다. 각 구성요소는 개인의 주요 경험, 상징화된 자각, 외적 행동과 의사소통 사이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신체의 상태, 감정과 같은 실제 경험과 인지적 의식 속에 표상된 경험 간의 일관성은 자기 소외(Self-alienation)라는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자기 소외 자체는 자기에게 일어난 실제 경험과 의식된 인지적 표상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소외가 높을수록 진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식적으로 지각된 경험과 행동 간의 일치성은 진정한 삶(Authentic living)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념이 ‘외부 영향 수용하기(accepting external influence)’로 정의되었다. ‘자기 소외’와 ‘진정한 삶’ 모두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성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타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의 정체성에는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어 진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Knoll, Meyer, Kroemer, Schröder-Abé(2015)은 기존의 진정성 척도였던 AI3과 AS가 개념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연구 분야에서 적용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Knoll 등(2015)은 AI3와 AS로부터 두 가지 차원을 추출하여 2요인 모형을 개발하였다. 첫 번

제 요인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으로 자아를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내적 상태와 의도와 관련된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기 표현(self-expression)으로 행동, 의복양식, 경력과 관련된 결정과 같은 것에서 이미 달성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진정성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향숙(2009)이 AS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AS에서는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던 문항 하나가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는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제외되었다. 홍정순(2017)은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다. 홍정순(2015a)으로부터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서 각각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수용, 일치성,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함, 정성을 다함이 추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홍정순(2017)은 예비 문항을 추출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정성 요인으로 일치성, 비편향적인 자각, 진심 어린 태도를 추출하였다.

이향숙(2009)과 홍정순(2017) 모두 기존의 척도들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향숙(2009)은 ‘외부 영향 수용하기’의 한 문항에 대한 해석이 문화 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홍정순(2017)은 ‘일치성’ 요인에서 기존 척도들에는 포함된 자기 주장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자신이 개발한 척도에서는 제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 중심적 표현을 억제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진심 어린 태도’라는 요인은 완전히 새로운 요인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를 진정성의 요소로 정의하는 것이며, 이 요인 또한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홍정순(2017)의 연구가 한국적인 진정성 척도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나 ‘진정한’ 진정성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치성’, ‘비편향적인 자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대부분 감정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동기, 의지, 신체적 상태와 같은 내적 상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진정성의 의미가 참 자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에 있다면, 하위 요인인 ‘진심 어린 태도’의 문항들은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 홍정순(2017)은 척도를 일반인과 상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자료를 얻었지만 주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가에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척도를 개발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Knoll 등(2015)이 밝히고 있듯이 다른 분야의 장면들에서는 척도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판 진정성 척도 연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한국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화적 차이 요인, 즉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진정성을 고려하되,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항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Knoll 등(2015)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척도의 개념적 모호성과 측정 경계의 중첩적 측정을 해결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요구된다. 또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양과 비교할 때, 동양은 더 집단적이고 덜 개인적이다. 동서양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양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동서양 간의 분명한 문화적 차이는 한 개인의 자아(self)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련되는 정도에서 나타난다(Baumeister & Leary, 1995; Gardner, Gabriel, & Lee, 1999). 동양은 집단주의(collectivism),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사회 중심적 자아(sociocentric self), 서양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독립성(independence), 자기중심적 자아(egocentric self)로 구분된다(Markus & Kitayama, 1991; Schweder & Bourne, 1984; Triandis, 1989).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진정성 있는 행동은 자기중심적 행동과 사회 중심적 행동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개발된 척도는 자기중심적 행동에 대해 측정을 하고 있지만, 사회 중심적 행동에 대한 측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중심적 행동의 측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으로부터 “나는 나의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비밀을 가질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신의, 기만적 행동과 같이 관계적 사회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은 사회 중심적 행동의 가치가 우선하는 한국 사회에서 실용적 의미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진짜 ‘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쉽게 꾸며낼 수 있다.”, “나에게는 상황에 따라 진짜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들이 있다.” 같은 기만적 행동과 “나는 남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경험이 있다.” 같은 신의 등의 개념을 담고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를 고찰하고자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척도는 기존의 진정성 척도 개발 시에 사용되었던 것들이었다. 이 기준에서 삶의 질 척도, 마음챙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일반적 성격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동기와 정서 관련 척도가 사용되었다.

삶의 질

대부분의 상담심리학의 조류에서 진정성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Wood et al., 2008). Yalom(1980)과 May(1981)은 자아의 상태와 인식이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외를 보고 있으며 이는 심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Wood et al. (2008)에서 표본에 따라 ‘자기 소외’는 부적 상관을, ‘진정한 삶’은 정적 상관을, ‘외부 영향 수용하기’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_{자기소외} = -.34 \sim -.50$, $r_{진정한 삶} = .21 \sim .22$, $r_{외부 영향 수용하기} = -.06 \sim -.35$). 홍정순(2017)의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 상당한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r = .38$). Knoll 등(2005)은 진정성을 예측 변수,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였고 양의 베타값을 보고했다($r = .38$).

마음챙김

마음챙김(mindfulness)은 진정성의 구성요소 중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Kabat-Zinn(1990)은 마음챙김을 ‘순간순간 주의의 장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비판단적이며 현재 중심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를 개발한 Brown과 Ryan(2003)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의 즉각적 경험에 대한 편안하고 비판단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Lakey, Kernis, Heppner와 Lance(2008)는 마음챙김과 진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둘 간의 상관은 강한 정적 상관이었으며($r=.48$), 특히 마음챙김과 진정성의 하위 요인 중 자기인식과의 상관은 매우 강했다($r=.67$).

자아존중감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진정성의 결과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Harter, Waters, Pettit, Whitesell, Kofkin, Jordan(1997)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로부터의 인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진정성 있는 자기행동을 나타내는 정도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Feldman Barrett, Cleveland, Conner, Williams(2000)은 낮은 기질적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쫓아내기 위해 방어적 전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질적 진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동기화가 되어있고, 느낀 그대로 정서를 경험하고, 평가한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Kernis와 Goldman(2006)의 연구에서는 표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7\sim.68$). Wood 등(2008)에서 표본에 따라 ‘자기 소외’는 강한 부적 상관을, ‘진정한 삶’은 정적 상관을, ‘외부 영향 수용하기’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_{자기소외}=-.45\sim-.59$, $r_{진정한 삶}=.23\sim.36$, $r_{외부 영향 수용하기}=-.20\sim-.27$). Knoll 등(2015), 이향숙(2009), 홍정순(2017)에서 자아존중감과 진정성은 모두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48$, $r=.53$, $r=.48$).

성격 특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정성은 성격 요인에 대해 혼재된 상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Maltby, Wood, Day, Pinto(2012)는 성격 5요인 척도를 포함하여 23개의 성격 관련 척도와 진정성 척도를 질문하여 이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진정성은 성격의 HEXACO 모형 하위 요인인 정직/결손성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을 보였다. Fleeson과 Wilt(2010)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신중성, 원만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높을 때 진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Wood 등(2008)에서는 성격 5요인과 진정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HEXACO모형의 하위 요인들과는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Wood 등(2008)에서 ‘자기 소외’는 외향성, 원만성, 신중성과 부적 상관을, 신경증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은 상관이 거의 없었다(각각 $r=-.29$, $r=-.24$, $r=-.28$, $r=.25$, $r=-.04$). ‘진정한 삶’ 또한 외향성, 원만성, 신중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개방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12$, $r=.27$, $r=.17$, $r=-.04$, $r=.21$), ‘외부 영향 수용하기’와 외향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원만성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신중성과는 부적 상관, 신경증, 개방성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33$, $r=-.07$, $r=-.16$, $r=.19$, $r=.10$).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은 설문 등을 응답할 때 자신이 가진 본래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혹은 인정되는 응답을 하려는 경향성을 뜻한다(Rubin & Babbie, 2008). 진정성 척도의 일부 문항들은 겉으로 보기에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예를 들면, ‘나는 가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Wood 등(2008)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척도인 인상관리나 자기기만 모두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_{\text{인상관리}}=-.09$, $r_{\text{자기기만}}=-.08$). 반면 이항숙(2009)에서는 자기 기만이 진실성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각각, $r_{\text{인상관리}}=.06$, $r_{\text{자기기만}}=.64$). Knoll 등(2015)에서도 진정성 하위 척도인 ‘자기 인식’에서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r_{\text{인상관리}}=.33$, $r_{\text{자기기만}}=.60$). ‘자기 표현’에서도 또한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r_{\text{인상관리}}=.31$, $r_{\text{자기기만}}=.53$).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사회적 바람직성 중 특히 자기 고양은 진정성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 요인과 정서

자기조절초점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간의 두 가지 동기로 어떠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며(Higgins, 1998),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Higgins, 1989; Higgins, 1997).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항상 동기나 예방 동기가 높을수록 실제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또는 당위적인 자기와의 간격을 일치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기의 일치는 곧 진정성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상황에 대한 높은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토대로 한다(Schutte, Malouff, Thorsteinsson, Bhullar, & Rooke, 2007).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정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 하여 더 적응적이 된다(고유경, 유소영, 2017, 백선숙, 조혜영, 2017; Barrett &

Gross, 2001; Ciarrochi et al., 2003). 즉, 정서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인식 또한 높을 것이며 이는 진정성과 관계가 된다. 비록 정서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 개발에서 정서와의 상관관계가 측정되었다. Kernis와 Goldman(2006)에서는 긍정 정서(긍정 정서의 크기에서 부정 정서의 크기를 뺀 값)와 진정성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r=.44$). Wood 등(2008)에서는 표본에 따라 긍정 정서가 '자기 소외'에서는 부적 상관을, '진정한 삶'에서는 정적 상관을, '외부 영향 수용하기'는 대체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r_{자기소외}=-.21\sim-.35$, $r_{진정한 삶}=.17\sim.23$, $r_{외부 영향 수용하기}=-.23\sim.06$). 부정 정서는 '자기 소외'에서는 정적 상관을, '진정한 삶'에서는 대체로 부적 상관을, '외부 영향 수용하기'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_{자기소외}=.21\sim.49$, $r_{진정한 삶}=-.07\sim-.27$, $r_{외부 영향 수용하기}=.18\sim.21$). 이향숙(2009)에서는 진정성이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인,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진정성이 높으면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는 낮게 나타났다(각각 $r=.29$, $r=-.35$).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진정성 척도를 구성하는 최종 문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Kernis와 Goldman(2006)과 Wood 등(2008)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사회 중심적인 동양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적 진정성, 기만적 행동과 신의를 나타내는 25개의 문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구성된 최종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최종 문항과 기존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HEXACO 성격검사, 자기조절 초점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OO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124명(남, 64명, 여, 6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나이는 약 22.0세였다(남 22.6세($SD=2.10$), 여=21.0세($SD=1.67$)). 진정성 예비문항과 자기조절 초점과 HEXACO 성격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을 했고, 실험참가 점수를 보상으로 받았다.

측정도구

진정성 척도 예비 문항

Kernis 45개 문항(Kernis & Goldman, 2006), Wood 25개 문항(Wood et al., 2008)과 기만적 행동과 신의와 관련된 25개의 문항을 포함한 9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평소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1에서 5점으로 측정되었다.

HEXACO 성격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HEXACO 성격 검사는 6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어 축약 버전을 사용하였다. HEXACO 검사의 하위버전은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shton과 Lee(2009)가 개발하였으며 100문항의 HEXACO 검사와 하위 요인 구조가 동일하였다. 한국어판은 척도의 원저자인 이기범이 번역하였다.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alpha_{정직/겸손성}=.63$, $\alpha_{정서성}=.74$, $\alpha_{외향성}=.81$, $\alpha_{우호성}=.72$, $\alpha_{성실성}=.77$, $\alpha_{개방성}=.72$).

자기조절초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조절초점 척도는 Higgins, Friedman, Harlow, Idson, Ayduk, Taylor(2001)가 개발한 척도를 김세나 등(2015)이 타당화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버전은 기존의 11문항을 9문항으로 축약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웠습니까?”과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아서 곤란해지거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이 제외되었다.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alpha_{향상초점}=.71$, $\alpha_{예방초점}=.82$).

분석 절차

95개의 문항에 대해 예비 분석을 통해 30개 문항을 추출하였고, 이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Kernis와 Wood의 기존 문항과 새롭게 추가한 문항이 구성하는 요인 구조를 살피고,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후 기존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점수를 비교하였고, 준거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HEXACO 척도 점수와 비교하여, 새로운 진정성 척도를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2가 사용되었다.

결 과

1차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검사 값은 양호하였고(KMO=.8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미($\chi^2=1697.811$, $df=435$, $p<.001$)하여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하위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교회전과 주축 요인 추출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교회전을 사용한 이유는 요인 간 상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Worthington & Whittaker, 2006). 요인 수는 Eigen 값이 1을 기준으로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스크리 도표에서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과 설명량을 볼 때, 요인은 3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요인은 총분산의 41.0%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11개의 문항, 요인 2는 8개의 문항, 요인 3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은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이므로, 이 값이 낮은 문항은 요인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게 행동한다.”, “나는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처럼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여러 변인에 다중부하된 문항들이 제거하였다. 또한, 공통성(communality, h^2)은 각 문항이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점수가 낮으면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곤 한다.”, “나는 전적으로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와 같이 공통성 점수가 .35 이하의 낮은 문항도 제거하였다.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표 1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KMO 검사 값은 양호하였고(KMO=.8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미($\chi^2=602.858$, $df=78$, $p<.001$)하여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하위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1차 탐색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사교회전과 주축 요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는 Eigen 값이 1을 기준으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산의 49.6%를 설명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3개의 요인 추출된 것은 동일하였으나, 문항이 30문항에서 13문항으로 감소하였고, 설명된 총분산은 약 8% 증가하였다. 요인 1은 1에서 5번까지 5문항이었고 모두 역채점되었다. 요인 2는 6에서 10번까지 5문항이었고, 8번 문항이 역채점되었다. 요인 3은 11에서 13번까지 3문항으로 모두 역채점되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은 Kernis와 Goldman(2006)의 인식과 Wood 등(2008)의 자기 소외를 구성하는 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은 대부분 Wood의 진정한 삶을 구성하는 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 3은 Kernis의 행동과 기만적 행동을 구성하는 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1>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124)

항 목	요인부하량			h ²
	1	2	3	
1. 나는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다(r)	.791			.599
2. 나는 현재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r)	.765			.578
3.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r)	.688			.510
4. 나는 가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r)	.675			.445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r)	.617			.368
6. 내 일상생활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812		.661
7.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일 때 다른 사람들과 있기 편하다		.747		.418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580		.439
10. 내 본연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551		.485
8.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안다면 아마도 놀랄 것이다(r)		.539		.485
12. 나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쉽게 꾸며낼 수 있다(r)			.816	.656
11. 나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한다(r)			.626	.391
13. 나에게서는 상황에 따라 진짜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들이 있다(r)			.416	.417
고유치(eigen value)	9.12	2.03	1.14	
설명변량	30.42	6.76	3.81	
누적변량	30.42	37.17	40.98	

추출방법: 주축 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회전방법: Pro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새롭게 구성된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alpha_{\text{진정성}}=.879$, $\alpha_{\text{factor1}}=.83$, $\alpha_{\text{factor2}}=.81$, $\alpha_{\text{factor3}}=.73$).

기존 Kernis와 Goldman(2006)의 내적 일치도는 .66이었고, 하위척도 인식(awareness)는 .74, 비편향적 과정은 .58, 행동은 .68, 관계적 지향성은 .62였고, Wood 등(2008)의 내적 일치도는 .73이었고, 하위척도 자기 소외는 .83, 진정한 삶은 .76, 외부 영향 수용하기는 .69였다. 새롭게 구성된 진정성 척도가 기존 척도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기존척도와 비교

새롭게 구성된 척도와 기존 척도와의 상관을 표 7(부록)에 나타내었다. 진정성 척도와 Kernis

간 상관(.801)보다 Wood(.897)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위 척도 간 관계를 보면, 요인 1은 Kernis의 인식, Wood의 자기 소외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각각 $r=.71, p<.001$; $r=.90, p<.001$).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과 기존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자기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Kernis의 행동, Wood의 진정한 삶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각각 $r=.66, p<.001$; $r=.82, p<.001$).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과 기존 척도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행동 진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Kernis의 관계적 지향성, Wood의 외부 영향 수용하기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p<.001$)을 보였지만(각각 $r=.35, p<.001$; $r=.48, p<.001$), Kernis의 행동과 새롭게 투입한 기만적 행동 문항이 요인 3을 구성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관계 진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준거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초점과 HEXACO 성격요인을 준거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새 진정성 척도는 기존 척도와 유사한 상관관계 패턴이 나타났다. 진정성 척도들은 접근 동기, HEXACO 모형의 외향성, 성실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Kernis 척도와 Wood 척도 모두 본 연구의 진정성 척도와 마찬가지로 정서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진정성 척도만이 유의미하였다.

<표 2> 진정성 척도, Kernis 척도, Wood 척도와 준거 변수 간의 상관관계(n=124)

준거 변수		진정성	Kernis 척도	Wood 척도
자기조절초점	향상 초점	.414**	.473**	.409**
	예방 초점	-.043	-.082	-.066
	정직.겸손성	.205*	.296**	.227*
	정서성	-.192*	-.061	-.171
HEXACO	외향성	.531**	.476**	.519**
	원만성	.018	-.034	-.061
	성실성	.265**	.372**	.256**
	경험에 대한 개방성	-.089	.070	-.029

* $p<.05$, ** $p<.001$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분석

연구 1에서 최종 선택된 13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문 응

답자료가 2차례 수집되었다. 첫 번째 수집자료(표본 A)는 위험행동과 관련된 별도의 실험 연구에서 수집되었고, 두 번째 수집자료(표본 B)는 표본의 수를 늘리고,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방 법

연구대상과 수집 절차

표본 A는 경기도 소재 OO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121명(남, 54명, 여, 67명)이 참여한 실험에서 수집되었다.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21.3세였다(남 22.3세, 여 20.5세). 위험감수 성향과 단어 기억 과제를 수행 후 연구 1과 동일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을 완료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한 120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 B도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101명에게서 수집되었다. 표본 B의 수집과정은 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표본 A의 수집과정이 동일하였다. 다만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바람직성, 자아존중감, 마음챙김, 정서다양성 척도가 추가되었다. 표본 A의 참가자는 실험 참가 점수와 상품권을 보상으로 받았고, 표본 B의 참가자는 실험 참가 점수를 보상으로 받았다.

측정도구

진정성 척도, 자기조절초점, HEXACO 성격검사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진정성 척도는 최종 선택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진정성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고($\alpha=.912$),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 또한 양호하였다($\alpha_{자기인식}=.87$, $\alpha_{행동진정성}=.87$, $\alpha_{관계진정성}=.66$). 자기조절초점의 내적 일치도 역시 양호하였고($\alpha_{상조점}=.79$, $\alpha_{예방조점}=.87$), HEXACO 역시 마찬가지로였다($\alpha_{정직/겸손성}=.72$, $\alpha_{정서성}=.83$, $\alpha_{외향성}=.85$, $\alpha_{우호성}=.80$, $\alpha_{성실성}=.80$, $\alpha_{개방성}=.72$). 진정성과 HEXACO 척도는 표본 A와 B에서 모두 수집되었고, 자기조절초점은 표본 A에서만 수집되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은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성을 뜻한다(Rubin & Babbie,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김용석(2010)이 개발한 SDS-24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자기기만'과 '인상관리'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16문항, 8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바람직성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바람직성의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였다(각각, $\alpha_{\text{사회적 바람직성}}=.67$, $\alpha_{\text{인상관리}}=.78$, $\alpha_{\text{자기기만}}=.66$).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 차경호(1998)가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하였다.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의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였다($\alpha=.87$).

마음챙김

마음챙김 척도는 Brown과 Ryan(2003)이 개발하고 권선중, 김교현(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문항이 역산으로 계산되었다. 7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였다($\alpha=.8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역문항을 포함한 1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였다($\alpha=.87$).

정서다양성

정서다양성은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가 많고 적음을 정량화한 개념으로서 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건강하다(Quoidbach, Gruber, Mikolajczak, Kogan, Kotsou, & Norton,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다양성 척도는 Philippot, Schaefer, Herbet(2003)의 차별적 정서 척도(differential emotion scale, DES)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20개의 서로 다른 정서(10개의 긍정 정서, 10개의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측정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Quoidbach et al., 2014). 척도 점수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Emodiversity = \sum_{i=1}^S (P_i \times \ln P_i) \quad (1)$$

식 1에서 S 는 경험한 정서의 총 개수를 나타내며, P_i 는 경험한 정서의 총량 중 i 번 정서의 비중을 가리킨다. 한 개인이 하나의 정서를 경험한 횟수를 모든 유형의 정서를 경험한 총 횟수로 나누어 P_i 를 계산하고 이 값을 자연로그 값과 곱한다($P_i \times \ln P_i$). 이 곱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 개인이 경험한 모든 정서에 대해 반복하고, 모든 곱을 더한 후 -1 을 곱하면 정서 다양성 점수가 산출된다(김영준, 김경일, 2018). 계산 값이 클수록 다양한 정서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정서다양성 점수, 긍정 정서 다양성 점수, 그리고 부정 정서 다양성 점수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

표본 A와 B에 모두 수집된 자료는 진정성, HEXACO성격 검사, 자기조절초점이었고, 표본 B에서만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바람직성,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정서다양성이었다. 우선 새롭게 만든 진정성 척도의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 요인 모형, 3요인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계층적 모형은 하위 요인이 3개이기 때문에 모형이 적절 식별되어, 모든 모형 적합도 지수가 3요인 모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형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모형 적합도 비교에는 IBM SPSS Amos 22가 사용되었다. 새로운 진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자기조절 초점, HEXACO, 사회적 바람직성,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마음챙김 척도와 비교하였고,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2가 사용되었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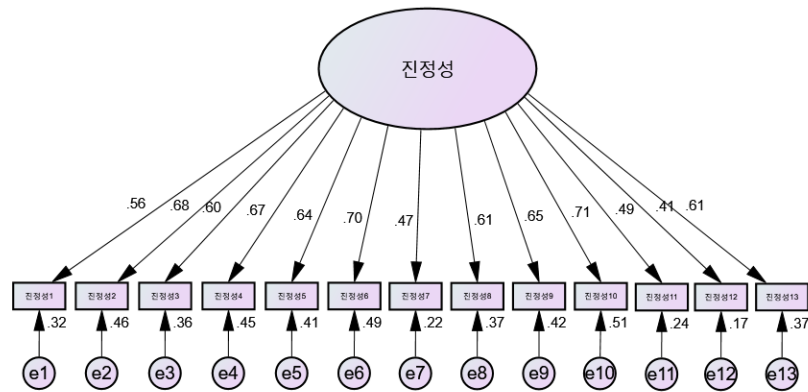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

진정성 척도의 모형 구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가 나타났다($\chi^2=134.941, p<.001$; Normed $\chi^2<3$). 증분적합도 지수 CFI, TLI(NNFI)가 .9이상으로 우수하였고, 절대적합도 지수 RMSEA는 .05이상 .08이하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고, SRMR도 .1보다 낮아 수용 가능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Cudeck, 1993;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모든 적합도 수치에 우수하였을 뿐 아니라 3요인 모형의 모든 수치가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표 3> 진정성 모형 간 모형 적합도지수(n=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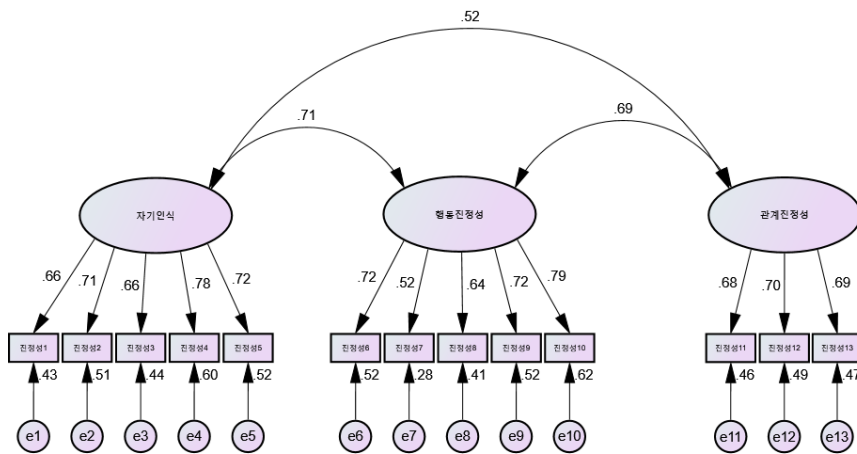
모형	χ^2	df	CMIN/df	CFI	NFI	TLI	RMSEA	SRMR	GFI	AIC
Null model	1149.383	78	14.736							
1-factor	415.801	65	4.374**	0.795	0.753	0.754	0.124(.109-.139)	0.085	0.807	336.322
3-factor	134.941	62	2.176**	0.932	0.883	0.914	0.073(.056-.090)	0.061	0.915	192.941

** $p < .001$, 괄호는 90% 신뢰구간임.



Chi-square=284.322 (df=65) p=.000
TLI=.754 CFI=.795 RMSEA=.124

(그림 1) 1 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square=134.941 (df=62) p=.000
TLI=.914 CFI=.932 RMSEA=.073

(그림 2) 3 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타당도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표준회귀계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표준회귀계수는 .5이상, CR은 .7이상, AVE는 .5이상인 경우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송지준, 2013; Anderson, & Gerbing, 1988;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3요인 진정성 척도의 표준회귀계수는 모두 .5이상이었고, 하위 요인인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의 개념신뢰도는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며 (CR자기인식=0.83, CR행동진정성=0.81, CR관계진정성=0.73), 평균분산추출은 기준에 조금 미흡하였다(AVE자기인식=0.50, AVE행동진정성=0.47, AVE관계진정성=0.48). 행동 진정성과 관계 진정성의 AVE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다른 지표가 수렴타당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의 수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변별타당도는 진정성 하위 척도 간 상관 중 가장 높은 상관은 자기인식과 행동 진정성 간의 상관이었으며($r=.58$), 이를 제공한 값(0.336)보다 가장 낮은 AVE(0.475)가 더 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정성 척도는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송지준, 2013; Fornell, & Larcker, 1981).

<표 4> 진정성 척도의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요인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n= 221)

변인	진정성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
진정성				
자기인식	.845**			
행동 진정성	.877**	.580**		
관계 진정성	.724**	.403**	.539**	
CR		0.833	0.813	0.731
AVE		0.500	0.469	0.475

** $p < .001$

요인 간 상관분석

진정성 척도의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모든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정성 전체 점수와 행동 진정성 간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r=.88$).

준거 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크게, 심리적 건강, 일반적 성격, 동기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단, 표본 A와 B 모두에 수집된 자료는 통합하여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5에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선 진정성과 심리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진정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하위 요인인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 모두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의 변인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 관계 진정성과 삶의 만족도 간과 관계 진정성과 마음챙김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정성과 일반적 성격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정성이 높을수록 정직·겸손성, 외향성, 성실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위 요인인 자기인식은 외향성과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

<표 5> 진정성 척도와 준거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변인		진정성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	표본		
심리적 건강	삶의 만족도	.483**	.493**	.515**	.073	B		
	마음챙김	.315**	.319**	.266**	.159			
	자아존중감	.580**	.598**	.532**	.213*			
성격	정직·겸손성	.170*	.059	.139*	.272**	Both		
	정서성	-.128	-.246**	-.026	-.003			
	외향성	.481**	.449**	.495**	.170*			
	원만성	.026	-.003	.026	.052			
	성실성	.181**	.130	.148*	.183**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8	-.077	-.075	-.130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	.572**	.427**	.574**	.382**	B		
	자기기만	.421**	.319**	.425**	.268**			
	인상관리	.446**	.328**	.445**	.307**			
동기와의 정서	자기조절초점	.511**	.477**	.504**	.229*	A		
	예방 초점						.072	.055
	정서다양성	.008	-.061	.055	.033			
	정서 다양성	긍정 정서다양성	.288**	.229*	.294**		.162	B
		부정 정서다양성	-.263**	-.289**	-.211*		-.114	

* $p < .05$, ** $p < .001$

였고, 유일하게 정서성과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행동 진정성과 관계 진정성은 관계 진정성은 정직.겸손성, 외향성, 성실성과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정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에는 모든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정성과 동기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정성과 접근동기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 요인 모두 동일한 관계를 보였지만, 진정성과 예방 동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정성과 정서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진정성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 다양성이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과 부정 정서 다양성이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진정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도 마찬가지로 긍정 정서 다양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 다양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관계 진정성은 부정 정서 다양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일명 ‘부캐’ 라고 하는 한 명의 인격 내에서도 다른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행인 오늘날, 무엇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무엇이 가짜 모습인가를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관계가 피상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존 척도의 문항들과 동양적 가치인 관계적 진정성, 기만적 행동, 신의를 나타내는 문항을 포함하여 한국판 진정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심리적 건강, 성격, 동기, 정서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여 준거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의 문항들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던 Knoll 등(2015)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13개의 문항은 Kernis와 Goldman(2006)의 45개 문항, Wood 등(2008)의 12개 문항, 동양적 가치에서 중요한 신의와 기만적 행위를 나타내는 25개의 문항에서 추출되었다. 연구 1에서 95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다중 부하된 문항들과 공통성이 낮은 문항들이 우선 제거되고, 3개 요인 30문항을 우선 선택하였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7문항을 추가로 제외하고 13문항을 최종 선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최종 선택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모형 적합도 지수로 구성, 수렴, 변별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이향숙, 2009; 홍정순, 2017; Kenis & Goldman, 2006; Knoll et al., 2015; Wood et al., 2006)에서 진정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심리적 건강, 일반적 성격, 사회적 바람직성, 동기, 정서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준거타당도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3 요인 모형은 자기인식, 행동 진정성, 관계 진정성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자기인식은 측정 문항, 기존 척도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아차리는 정도이다. 둘째, 행동 진정성은 측정 문항과 기존 척도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볼 때 세 번째 요인인 관계 진정성과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측정 문항의 기만적 의도와 표 5에 나타난 다른 척도와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두 요인의 차이를 대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행동 진정성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도 즉, 초점이 자신에게 있다. 그에 반해 셋째, 관계 진정성은 자신의 내적 상태의 표현을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도, 즉,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 개발한 척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수집한 세 개의 다른 표본에서 기존의 Kenis와 Goldman (2006)과 Wood 등(2006)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수렴과 판별 타당도가 충분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또한 더 높았기 때문에, 3요인 모형은 심리측정적으로 안정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Normed chi-square, CFI, TLI(NNFI), RMSEA, SRMR 등 모델적합도 지수들도 모두 3요인 모형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초점, HEXACO,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사회적 바람직성, 정서 다양성 등의 다양성 구성 개념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진정성 척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해 진정성 척도를 개발한 Knoll 등(2015)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주요한 차이점은 진정성에 동양적 가치를 반영하였다는 것과 보편적 사용을 위하여, 심리적 건강, 사회적 바람직성 뿐 아니라 일반적 성격, 동기,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에게 개인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실제로 기만적 행동을 나타내는 “나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한다.”, “나에게는 상황에 따라 진짜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들이 있다.” 등의 문항이 관계 진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최종 선택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계 진정성을 구성하는 문항의 특성은 나의 잘못이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만적 행동의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고, 행동 진정성을 구성하는 문항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얼마나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 것과 관련되어 있고, 타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가 진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세분화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분은 관계 진정성이 HEXACO모형의 정직-겸손성, 외향성, 성실성과 나타내는 상관관계의 강도 패턴이 행동 진정성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두 요인의 구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을수록 자신이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도록 자기와 타인을 속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계 진정성 사이의 상관 강도가 행동 진정성과의 상관보다 낮다는 것은 관계 진정성과 행동 진정성의 구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변인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동양적 가치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내었다. 김의철, 박영신(2006)은 한국인의 자기 인식이 관계 속에서 위치한 역할에 초점을 두는 특성이 있고, 역할의 불일치가 스트레스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했다.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변하지 않는 자기를 일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다는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기를 진솔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척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이나 상담 장면에 특화하지 않고, 보편적인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다양한 개인차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진정성 높은 사람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우선 진정성은 HEXACO모형의 정직·겸손성, 외향성, 성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동 진정성이 HEXACO 하위 요인들과 나타내는 상관과 관계 진정성이 나타내는 상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계 진정성은 정직·겸손성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행동 진정성은 외향성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계 진정성이 높을수록 정직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진정성은 심리적 건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ernis와 Goldman(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관계 진정성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거나 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충실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에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관계 진정성과 심리적 건강 간의 무상관성은 특이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 진정성이 높음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겉마음과 속마음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은 쉽게 건강 저해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예의일수도 위선일수도 있기에, 겉마음과 속마음의 불일치가 흔들림 없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인가는 불확실해 보인다. 또한, 심리적 건강과 관계 진정성 간의 무상관성이 의미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진정성이 겉마음-속마음의 불일치성과 심리적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문화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Higgins(1998)의 자기조절초점 이론은 동기와 정서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였다. 항상 동기가 높을수록 의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그로 인해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진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잘 인지하고 믿음이나 목표를 성취하려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두 요인 간의 정적 상관은 예측 가능하였다. 한편, 예방 동기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밀어냄으로써 안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상황이나 위협을 잘 인지하고 그것에게서

벗어나거나 물리치려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요인도 역시 정적 상관이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예방 동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이 정서다양성에서도 관찰되었다. 진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성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진정성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다양하게 경험하였지만, 부정 정서의 종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은 흥미로운데 이론적 균형성과 경험적 불균형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 마음챙김, 자기조절초점, 정서다양성의 개념은 긍정적 영역과 부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구분하지만, 서로 대칭적이거나 균형적으로 설명된다. 즉, 긍정 정보뿐 아니라 부정정보의 처리와 수용에 왜곡이 없고 이것이 심리적 균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ernis와 Goldman(2006)이 밝혔듯이 자기 관련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비편향적 처리하기보다는 대부분 방어적 기제의 작용으로 자기 관련 부정적 정보는 왜곡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이 진정성과 예방 동기 사이와 진정성과 부적정서 다양성 사이의 예측된 상관관계와 다른 양상이 관찰된 이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정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사이의 높은 정적 상관은 두 개념의 상반성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결과이다. 이전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Wood 등(2008)을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과 진정성 사이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향숙(2009), 홍정순(2015b)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척도와 Knoll의 척도 간의 공통점은 자기인식 요인의 추출과정에 있는데, 비편향적 처리를 구성하는 문항이 두 연구 모두에서 배제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측정의 안정성일 수 있다. Kernis와 Goldman(2006)의 비편향적 처리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강점과 약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것은 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균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비편향적 처리는 자기 관련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방어적 기제의 작용 가능성이 있어서(Kernis & Goldman, 2006), 잠재적인 측정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비편향적 처리 문항이 배제되었기에 자기 관련 부정적 정보의 처리에서 방어기제의 작용 여부가 진정성 측정에 줄 수 있는 영향이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측정의 안정성 문제가 개념적으로 비편향적 처리가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Knoll 등(2015)은 이전까지 언급했던 진정성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전의 Kernis와 Goldman(2006), Wood 등(2008)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진정성을 구성하는 차원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그는 이전 연구에 사용된 척도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진정성의 차원들을 더 명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Knoll의 척도에서 빠져 있는 차원의 문항들을 추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적으로 진정성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실 현재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척도들 중 거의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지만 학자마다 주장이 달라 각각의 하위 차원들에서는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한 통합적 척도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척도의 사용으로 인한 개념적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유경, 유소영 (2017).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감정성향, 실습지에서 지각한 약자괴롭힘이 전공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 2219-2231.
- 권선중, 김교현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 (K-MA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269-287.
- 김세나, 표두미, 이지선, 이준기, 민준호, 신강현, 김경일 (2015). 한국판 조절초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85-110.
- 김영준, 김경일 (2018). 정서의 다양성과 강도가 동적 의사결정, 심리적 유연성,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455-1472.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4), 1-36.
- 백선숙, 조혜영 (2017). 대학생의 공감과 불안,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5), 2841-2852.
- 송지준 (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nd edition. (pp 387-402), 21세기사: 파주.
- 이향숙 (2009).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정순 (2015a). 진정성 구성 개념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 연구**, 30, 109-141.

- 홍정순 (2015b). 진정성 척도 개발 및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 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정순 (2017). 진정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29-15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shron, M. C., & Lee, K. (2009). The HEXACO-60: A short measure of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340-345.
- Barrett-Lennard, G. T. (1998). Carl Rogers' helping system: Journey and substance. London: Sage.
- Barrett, L. F. & Gross, J.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 process model of emotion representation and regulation. In T. J. Mayne G. A. Bonanno (Ed.), *Emotions and Social Behavior. Emo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p.286-310).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e.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84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36-162.
- Ciarrochi, J., Caputi, P., Mayer, J. D. (2003). The distinctiveness and utility of a measure of trait emotional awar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8), 1477-149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ldman Barrett, L., Cleveland, J., Conner, T., & Williams, N. L. (2000). *Manual for The Defensive Verbal Behavior Ratings Scale (version 3.0)*.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College.
- Fleeson, W., & Wilt, J. (2010). The Relevance of Big Five Trait Content in Behavior to Subjective Authenticity: Do High Levels of Within-Person Behavioral Variability Undermine or Enable Authenticity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4), 1353-1382.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4), 321-32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p. 776-779) Pearson Prentice Hall. New Jersey.
- Harter, S., Waters, P. L., Pettit, L., Whitesell, N. R., Kofkin, J., & Jordan, J. V. (1997). Autonomy and

- connectedness as dimensions of relationship styles in adult men and wom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2), 147-164.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93-136.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 Kabat-Zinn, J. (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acorte.
- Kernis, M. H., & Goldman, B. M. (2006). A multi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authenticity: Research and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8, pp. 284-35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noll, M., Meyer, B., Kroemer, N. B., & Schroder-Abe, M. (2015). It Takes Two to Be Yourself: An Integrated Model of Authenticity, its Measurement, and its Relationship to Work-Related Variable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6(1), 38-53.
- Lakey, C. D., Kernis, M. H., Heppner, W. L., & Lance, C. E.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authenticity and mindfulness as predictors of verbal defens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230-238.
- Maltby, J., Wood, A. M., Day, L., & Pinto, D. (2012). The position of authenticity within extant models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3), 269-27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y, R. (1981). *Freedom and Destiny*. New York: Basic Books.
- Philippot, P., Schaefer, A., Herbette, G. (2003). Consequences of specific processing of emotional information: Impact of general versus specific autobiographical memory priming on emotion elicitation. *Emotion*, 3(3), 270-283.
- Quoidbach, J., Gruber, J., Mikolajczak, M., Kogan, A., Kotsou, I., Norton, M. I. (2014). Emodiversity and the emotional ecosystem.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3(6), 2057-206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A. & Babbie, E.(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Wadsworth.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chweder, R.A., & Bourne, L.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A. Schweder & R.A.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pp. 158-1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tte, N. S.,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Bhullar, N., Rooke, S. E. (2007).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6), 921-93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 Joseph, S.(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399.
-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806-838.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1차 원고 접수: 2020. 10. 22
1차 심사 완료: 2021. 06. 20
2차 원고 접수: 2021. 08. 02
2차 심사 완료: 2021. 08. 29
3차 원고 접수: 2021. 09. 10
최종 게재확정: 2021. 09. 10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uthenticity Scale

Youngjun Kim¹ Young-il Kim¹ Heungchul Lee² Kyungil Kim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²Net Intelligence & Research

Authenticity is the opposite of hypocrisy or deceitful living in philosophy. While various positive factors that humans experience in life based on authenticity have been studied abroad, most of the studies in Korea that tried to measure authenticit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or were developed only for the purpose of use in a limited domain or specific purpose. In this study, based on the specificity of Korean culture, we developed a measure of authenticity that researchers can use universally. To this end, the items constituting the existing authenticity scale and the items reflecting the cultural value of Korean society, which value social relationships, are integrated.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authenticity consists of three factors: self-awareness, behavioral authenticity, and relationship authenticity. In addition, criterion validity was verified based on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mindfulness, self-esteem, HEXACO, social desirability, self-regulation focus, and emotional divers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uthenticity scale of this study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and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ool for empirical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on authenticity in everyday life in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self awareness, behavioral authenticity, relational authenticity, interdependence, integrated approach, well-being

부록 I

<표 1> 진정성 척도와 기존 척도 간의 상관관계(n=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진정성													
2. 자기인식	.807**												
3. 행동 진정성	.826**	.417**											
4. 관계 진정성	.740**	.391**	.543**										
5. Kernis 척도	.801**	.605**	.697**	.607**									
6. Aw areness	.687**	.713**	.505**	.336**	.775**								
7. Unbiased processing	.395**	.347**	.262**	.342**	.666**	.345**							
8. Behavioral	.740**	.468**	.661**	.687**	.729**	.474**	.305**						
9. Relational orientation	.431**	.157	.543**	.352**	.642**	.340**	.211*	.281**					
10. Wood 척도	.897**	.811**	.702**	.575**	.795**	.736**	.380**	.722**	.394**				
11. Self alienation	.838**	.899**	.561**	.445**	.686**	.715**	.377**	.512**	.316**	.896**			
12. Authentic living	.733**	.410**	.824**	.511**	.740**	.583**	.217*	.675**	.616**	.758**	.537**		
13. Accepting external influence	.595**	.563**	.376**	.478**	.528**	.464**	.307**	.639**	.068	.775**	.534**	.405**	

* $p < .05$, ** $p < .001$

부록 II

<표 2>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n=221)

항 목	요인부하량			h ²
	1	2	3	
4. 나는 가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t)	.828			.619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t)	.742			.543
1. 나는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다(t)	.722			.450
2. 나는 현재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t)	.608			.500
3.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t)	.601			.416
10. 내 본연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25		.640
6. 내 일상생활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731		.591
8.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안다면 아마도 놀랄 것이다(t)		.625		.420
7.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일 때 다른 사람들과 있기 편하다		.598		.293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437		.507
11. 나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한다(t)			.950	.765
12. 나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쉽게 꾸며낼 수 있다(t)			.600	.434
13. 나에게는 상황에 따라 진짜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들이 있다(t)			.421	.436
고유치(eigen value)	4.92	1.13	.57	
설명변량	37.84	8.67	4.35	
누적변량	37.84	46.50	50.86	

추출방법: 주축 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회전방법: Promax with Kaiser Normalization